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에 등지

전주지원, 오늘부터 업무 개시... 해양수산분야 재도약 프로젝트 성과 기대

전북도는 전북육 찾기 일환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우리 지역에 등지를 틀고 17일부터 전주시 서신동 소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10층)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원은 수산생물의 검역, 수출수산물의 검사,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품질인증 등록제도 등을 수행,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공급과 관리가 도내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수

산물 가공품 247개 품목, 음식집 12개 품목(광어,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전북도는 내수면 양식산업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수면어업이 전국에서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道)중 유일하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없어 그동안 충남 장항지원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수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거리 이동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원

산지 표시단속 등에 한계가 노출되어 어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전북도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전주지원 신설 필요성을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내륙지역 전국 최초로 전주지원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급변 전주지원 개원으로 전북육 찾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원에 따른 효과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로 오염물질(MG 등) 유통 사전 차단,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강화로 국내산 수산물의 보호,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출수산물의 검사시간 단축 및 품질인증 및 등록을 위한 방문시간 단축 등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국가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유치를 통해 도내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승구 국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북농어촌진흥지원터, (재)지역재단 등이 주최해 '전환의 시대 지역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4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지역리더대회에 송하진 도지사과 김승수 전주시장, 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중기 中시장 진출 초석 다진다

전북도-특장차 제조기업, 기술투자금·수출거점 확보 MOU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군산에 위치한 (주)이삭특장차, (주)기린장공이 특장차 및 관련부품의 중국내간 단축 및 품질인증 및 등록을 위한 방문시간 단축 등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국가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유치를 통해 도내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승구 국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료개혁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협약을 계기로 전라북도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서 그동안 답답했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그 동안 지역 내 타 산업 간 융합 기술개발 및 협력모델 도출에 힘쓴 결과 뿌리기업과 특장차기업으로 이어지는 상호 기술협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품에서 제품까지 이어지는 뿌리산업과 특장차산업 간의 융합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며, 전라북도가 특장차와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역할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행자위 '119안전체험관'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일일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물놀이안전체험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9안전체험관 관계자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119안전체험관 관계자에게 체험관은 재난종합체습 시설을 비롯 국내 유일의 물놀이 사고예방 교육장인 물놀이 안전체험장 등이 있어 전국에서 연간 15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교육생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 현장에도 참관하여 수난사고 시 호흡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무더운 여름 교육을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장은 "해마다 수난사고가 줄지 않는 만큼 수난사고 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도 높은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지사인증상품 20여개 품목 신규 선정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육성하는 2017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7월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인증상품은 현재 총 48개(농축수산물 12, 전통가공식품 32, 공산품 4개)로 운영관리 중이며 매년 20여개를 도 대표상품인 인증상품으로 선정하여 지정기업에 대해 판로확대와 브랜드 홍보 등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으로, 업체별 대표 상품 1개 품목을 선

정해야 하며 공산품중 소비자용품이 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율이 5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제품 원료 기준으로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 공산품은 일부 수입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도지사인증상품 접수기간은 오는 8

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희망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제품과 기업 검증 후 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중 20여개 제품을 인증상품으로 최종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게 된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될 경우 도에서 품질을 보증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가 향

8월14일~9월1일 신청접수 신규판로 개척 등 집중 지원

상되고 KTX 역사 및 수도권 특관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지역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물론 홈쇼핑,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등 신규 판로개척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신청업체의 경쟁력과 잠재력, 우수성 및 품질 수준, 위생환경 시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우리 도 대표상품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촉지원,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외협력국,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와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시작된 고향세 도입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도에서 적극 대응하여 정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가 전라북도에 유치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도영 부위원장(전주2)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나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노력 외에는 큰 실적이나 교류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와 센터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교류활동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원주1)은 "도민 누구나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원봉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분들이 자생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이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